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화이트 칼라 해고 늘지만, 블루 컬러는 그러지 않을 듯
- WSJ: 이번주 요일별로 발표되는 주요 미국 경제 지표

####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미 주식 22% 하락 리스크 있다"

####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전철 범죄 30% 급증...경찰 추가배치 효과 없어
- Bloomberg: 마운트 사이나이 등 뉴욕시 병원 두군데 간호사 7천여명 파업
- WSJ: 뉴욕시,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기 공간 부족

#### [국제 물류]

- Bloomberg: 글로벌 주요 항만 노조 시위, 작년에 4배 증가
- Bloomberg: 수에즈 운하에서 중국행 선박, 운항 중단한채 검사 받는 중

#### [글로벌 경제]

- CNBC: 중국 거대 소비 시장,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 힘들어

#### [반도체]

- Bloomberg: 미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전략으로 중국은 고전 중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포드, LG엔솔에 "4조 배터리 공장 짓자"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ES 2023: 라스베가스 최고의 기술은?
- WSJ: 직원을 어떻게 할지 회사들 갈등
- Bloomberg: 해고하는 월가 기업들 리스트

#### [보고서]

- BOKNY 보고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1월)
- 모건 스탠리 주간 에쿼티 전략: 컨센서스가 맞을 것인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As White-Collar Layoffs Rise, Blue-Collar Resilience Faces Test in 2023

#### 화이트 칼라 해고 늘지만, 블루 컬러는 그러지 않을 듯

- 화이트 칼라의 해고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간 금융, 보험 업계 해고 규모가 작년 동기간 대비 거의 두배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임, 브로커, 에이전트 해고는 20% 이상 이루어졌고, 테크 정보 부분은 14% 해

고했다. 물론 이같은 화이트 칼라 해고 규모는 작년 11월 전체 일자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그러나 블루 칼라 해고 규모와는 대조적. 동기간 제조, 레저, 환대 산업, 소매업종의 경우 화이트 칼라보다 적었다.
- 이유는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둔화하긴 하지만 해고하기에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팬데믹 반등 기간에 이들을 고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레저, 환대 산업등의 수요가 둔화되어도 이들을 해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 예컨대 지난해 내구재 소비 지출이 줄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6%가 높은 상황이다.

#### WSJ 기사

### WSJ: Economy Week Ahead: Consumer Inflation in Focus 이번주 요일별로 발표되는 주요 미국 경제 지표

- 화: 연방 상무부의 11월 도매 재고 지표. 10월엔 9월보다 0.5% 상승
- 수: 중국의 12월 소비자 인플레이
- 목: 연방 노동부의 12월 CPI 및 신규 주간 실업수당
- 금: 미시간 대학의 1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중국 12월 무역 흑자폭

####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Morgan Stanley Warns US Stocks Risk 22% Slump 모건 스탠리, "미 주식 22% 하락 리스크 있다"

- 미주식의 그동안 비관주의자들이 예측한 것 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 전략가의 내부 노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너무 높다는 것.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200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이고, 앞으로 완만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500는 시장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3,500~3,600포인트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는" 의견일치가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틀릴 수 있다"며 벤치마크가 현재 수준보다 약 22% 낮은 30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 [뉴욕시]

#### **Bloomberg: NYC Subway Crime Jumps 30%, Defying Surge in Police Patrols**

##### **뉴욕시 전철 범죄 30% 급증...경찰 추가배치 효과 없어**

- 지난 주 발표된 경찰측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하철 범죄가 2022년에 전년 대비 30% 증가해 뉴욕 전체 범죄가 22% 증가한 것 보다도 많았다.
- 뉴욕시는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매달 초과 근무 수당으로 2천만 달러를 추가 지출하는 등 지하철 범죄 단속에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뉴욕시장은 주요 범죄가 증가한 것은 주로 강도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살인은 전년 대비 11%, 총격은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housands of New York City Nurses Go on Strike at Two Hospitals**

##### **마운트 사이나이 등 뉴욕시 병원 두군데 간호사 7천여명 파업**

- 뉴욕시 주요 병원 Mount Sinai, Montefiore의 간호사 7천여명이 인력 부족과 급여 불만족을 호소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뉴욕시가 코로나 19, 독감, RSV 로 인한 이른바 3가지 “tripledemic” 에 직면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것이다.
- 병원 측은 전염병으로 인해 임금이 더 비싼 출장 간호사(travel nurse)가 공백을 메우면서 영업 이익이 줄었다고 밝히며 간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간호사 협회는 병원 측이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뉴욕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병원과 간호사 측의 지속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Bloomberg 기사

#### **WSJ: New York City Wants More EVs but Needs to Find Space for Chargers**

##### **뉴욕시,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기 공간 부족**

- 미 정부가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자 함에 따라 뉴욕시와 같은 밀집된 도시에서 개인 전용 충전기를 둔 차고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차고가 없는 운전자들이 사용할 공공 EV 충전 장소가 필요해졌다.
- 도시 교통 당국은 2030년까지 4만개의 일반 충전기와 6천개의 급속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급속 충전기 74개와 기존 EV 충전기 1천3백개만을 가지고 있다.
- 한편 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도심에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게도 난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시 차량의 1% 미만이 전기차이므로 EV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다.

WSJ 기사

## [국제 물류]

**Bloomberg: Labor Disruptions at World's Ports Quadruple as Discontent Grows****글로벌 주요 항만 노조 시위, 작년에 4배 증가**

- 작년에 노조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항만 처리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향후 계속 경제가 불안정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올해 글로벌 공급망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작년에 세계적으로 항만 시위가 38차례 이상 발생해서 전년도의 4배 이상 발생했다는 것이다.
- 항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임금을 정체된 상태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연료와 식품 가격을 상승하는 여파 때문이라고 노조 전문가, 화물 운송업자, 화주 들은 말했다. 즉, 이러 이유로 인해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더 강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인플레이는 위협적이지, 공급망은 야하지, 일자리는 타이트하다보니 노동자들의 '변동성을 보일' 혼란스럽 세력이 계속 될 것이라는 말이다.
- 관련 회사 Crisis 24 측은 "노동 불안은 2023년까지 감소할 것 같지 않으며, 세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실제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hip Refloated After Running Aground in Egypt's Suez Canal**  
**수에즈 운하에서 중국행 선박, 운항 중단한채 검사 받는 중**

-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엔진이 고장나 잠시 교통에 차질을 빚은 뒤 검사를 받고 있다.

- 아테네에 본사를 둔 Target Marine SA는 사고 발표문에서 냉각 부위로 부터의 누출로 벌크선 Glory가 추진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좌초하거나 중요한 무역 수로의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것.
- 6만6천톤의 곡물을 실고 있는 이 화물선이 검사받고 있는 기간에 약 20척의 화물선이 운하를 통한 남쪽 항해중이었는데 곧 항해를 재개할 것이라는 것.
- 이 화물선은 2021년 수에즈를 막아 세계 무역을 뒤흔든 거대한 컨테이너선 Ever Given 길이의 절반이 조금 넘는다.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 **CNBC: China's big consumer market isn't rebounding to pre-pandemic levels just yet**

#### **중국 거대 소비 시장,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 힘들어**

- 중국 경제가 재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두려움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부동산 침체 등이 여전히 원인이다.
- 중국의 2022년 소매 판매는 초반 3개월간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으나, 상반기에 0.7% 감소했다. 중국 증시는 2022년 4년 만에 떨어졌고, 중국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도 세계 수요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저축 성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한편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4월 초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여권 처리와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 조치가 완화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CNBC 기사

### [반도체]

#### **Bloomberg: America's Aggressive Chip Strategy Forces China Into a Corner**

#### **미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전략으로 중국은 고전 중**

-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극복할 전략을 찾고 있다.
- 중국의 칩 산업은 항상 미국보다 뒤쳐져 있으며 가장 앞선 반도체, 칩 제조 장비 및 지식을 위해 서구 기술에 의존해 왔다.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된 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칩,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 및 군

사 기술의 발전을 늦추려고 시도하면서 이러한 기술에서 중국을 차단할 방법을 찾으려고 작년에 시도했다.

- 이에 따라 중국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결국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투쟁은 시간이 걸리는 지구력 게임이다.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및 기타 주요 동맹국이 미국의 계획을 계속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간중간에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장기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포드, LG엔솔에 "4조 배터리 공장 짓자"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CES 2023: All the Cool, Crazy and Cute Tech We Found in Las Vegas

#### CES 2023: 라스베가스 최고의 기술은?

- 노트북 충전 지원 자전거 데스크: Acer의 eKinect BD 3를 타면 일하는 동안 운동을 하면서 페달을 밟는 에너지로 노트북을 충전할 수도 있다. / \$999
- 통화 소음 흡수하는 페이스 마스크: Airbus alum이 제작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크는 항공우주 자재와 기술로 음성 진동의 80%를 흡수한다. 다른 승객, 사무실 동료들 방해하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다. / \$400~
- 접히고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삼성의 Flex Hybrid는 접히고 당겨서 펼쳐지는 두 가지 기술을 모두 구현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10.5인치 접이식 디스플레이지만 12.4인치까지 확장할 수 있다.
- 가정용 소변 검사 스캐너: Withings의 U-Scan는 자동으로 소변 샘플을 추출해 수분, 영양 신진대사 등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 \$530
- 플라잉 자동차콥터: Aska의 A5는 자동차처럼 달리고, 헬리콥터처럼 날 수 있는 전기 4인승 SUV이다. 활주로도 필요하지 않은 A5의 비행 범위는 250마일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50마일이다. / \$789,000
- 스마트 믹서: 저울이 내장되어 있는 GE Profile의 Smart Mixer는 구글 홈 장치를 사용해 말로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시작,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과도하게 섞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자동 감지 기능도 있다. / \$999
- 피트니스 추적 스마트 워치: 클래식한 시계를 선호하지만 피트니스 추적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Baracoda의 BHeart는 태양 전지판으로 자가 발전한다. 보통의 시계처럼 디자인되어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어플을 사용해 활동 수준, 체온, 걸음, 수면의 질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 \$100

- 자율주행 잔디 기계: Worx의 Landroid Vision은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사용한 잔디 깎는 로봇을 선보였다. 따로 경계선이나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 \$2,399
- 카메라 내장 벌새 모이 기기: Bird Buddy의 벌새(Hummingbird) 자동 모이 기기는 AI가 적용된 모션 센서가 새를 감지하고,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을 찍어 새의 종을 알아낸다. / \$199
- 초경량 VR 헤드셋: HTC의 새 Vive XR Elite headset은 0.5파운드가 조금 넘는 무게이다. Pass-through video와 hand tracking으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가상 세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 \$1,099
- 디지털 텍스트 변환 볼펜: Nuwa의 스마트 볼펜은 특수 용지 없이도 필기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한다. 펜에 달린 세 대의 카메라와 적외선 조명이 필기를 추적하여, 연결된 기기의 어플에 기록한다.
- 물고기 식별하는 수족관: 대만 산업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수족관은 관찰자의 시선이나 제스처를 추적하고 AI가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물고기를 식별하여 수족관 벽에 보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가상 후각 시스템: OVR Technology가 개발한 후각 웨어러블 기기 Ion 3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장면에 해당하는 냄새를 생성해 코 쪽으로 뿜어낸다. 해변 장면을 볼 때 바다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하이테크 유아용 카시트: 앱을 통해 올바른 설치를 도와주는 Babyark car seat는 어린이가 안전 벨트를 풀거나 좌석에 남겨져 있는지를 알려준다. 충돌 시에는 에너지 흡수 기술로 좌석의 충격을 낮춘다. 오염 자가 세척 기능도 있다. / \$1,190
- 스마트 금고: Lockly의 스마트 금고는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기가 가능하다. 생체 인식 센서를 탑재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면 알림을 보낸다. / \$350
- 이외에 Amazon Echo의 디즈니 보이스,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위성 메시징, 듀얼 스크린 노트북-타블렛, LG의 LED 패널 냉장고 등이 새롭게 소개되었다.

WSJ 기사

## WSJ: The Debate Swirling Inside HR Departments: How to Lay Off Workers 직원을 어떻게 할지 회사들 갈등

- Amazon, Salesforce., CRM, Goldman Sachs 등 많은 회사들이 해고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세일즈포스의 Marc Benioff (CEO)는 수요일 직원의 약 10%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을 때 직원들에게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1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비디오 기술 회사 Vimeo Inc., VMEO는

약 140명을 삭감하게 되면서 직원 개개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회사 전체에 메모를 보냈다.

-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많은 직원을 해고해야 할지, 언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지,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직원을 줄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통고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퇴직금을 제공할지가 경영진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면서 한번에 대량 해고를 할지, 일정기간 동안 일련의 소규모 축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 예로 정리 해고가 너무 클 경우 회사의 실수로 핵심 부서나 핵심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정리 해고를 할 경우 조직이 장기간 불안정해 질수 있다고 맥킨지사는 말했다.

WSJ 기사

### **Bloomberg: These Are the Wall Street Firms Making Job Cuts** 해고하는 월가 기업들 리스트

- 투자은행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월가가 긴축 모드에 돌입했다. 금융 업계 경영진들은 앞으로의 긴축 경제에 대비하며 사업을 축소하고 해고 및 신규 채용 중단을 시작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BOKNY 보고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1월)**

한국은행 보고서 원문

### **모건 스탠리 주간 에쿼티 전략: Can the Consensus be Right?** 컨센서스가 맞을 것인가?

- 예컨데 올해 상반기에는 약세, 하반기에는 회복이라는 컨센서스가 틀릴지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 그러나 이는 얼마나 아래로 움직일지 즉, 규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업 수익이 많이 낮아지고 연준의 인플레 대응 노력 정도에 따라 S&P가 3,900일 수 있다.
- 물론 침체가 완만할 때는 SPX 3,500-3,600, 진짜 침체일 때는 아주 낮은 3,000기 될 수 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골디락스 시나리오 나왔다... 임금급등 진정에 美 연착륙 기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12월 고용보고서에 미 경제가 불황을 피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바라는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시나리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준이 고용보고서에서 골디락스를 얻다'는 제목으로,마켓워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 임금 상승 둔화가 미 경제의 경기침체 회피를 도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이 같은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6% 각각 늘어나 시장 전망치(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0%)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지난 2021년 여름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다. 근로자 임금 급등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